

世紀 末의 反科學정서

요즘 서점에서는 국내외를 막론하고 놀랄만한 예언을 담았다는 미래예언서와 풍수지리 그리고 기(氣)에 관한 책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다. 4백년 전에 예언했다는 서양예언서의 해설이 나와 화제를 모으는가 하면 대학가 주변에선 ‘사주카페’가 성업중이고 신문마다 내용이 다른 ‘오늘의 운세’가 독자들을 유혹하고 있다. 세기 말에 확산되는 反과학정서를 바로 잡는 일이 시급하다



玄 源 福
〈과학저널리스트〉

4백년 전의 예언

세기 말로 접어들면서 예언가들이 활동의 나래를 펴기 시작했다. 국내외의 이름난 예언가들은 너도나도 깜짝깜짝 놀랄만한 예언을 토해 내는가 하면 서점에는 미래예언서와 풍수지리 그리고 기(氣)에 관한 책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다. 그런데 아무리 내노라하는 예언가들도 ‘슈퍼예언가’ 노스트라다무스 앞에서는

주눅이 들 수밖에 없다. 1566년 스스로의 예언보다 1년 앞당겨 심장마비로 세상을 하직하기는 했지만 예언계에서의 그의 위치에는 4백30여년의 세월이 흐른 오늘날까지 흔들림이 없다. 그의 추종자들에 의하면 노스트라다무스는 이미 4백여년 뒤에 발생할 우주연락선 챌린저호의 폭발과 에이즈의 발생 그리고 심지어는 10년 내에 미국을 파국으로 몰고 갈 지진까지 예견했다는 주장이다. 일본에서 베스트셀러가 된 고토벤의 ‘노스트라다무스의 예언 : 중동편’은 그가 4백여년 뒤 있을 사담 후세인의 등장과 이라크와 쿠에이트 간의 전쟁을 어떻게 예언했는가를 설명하고 있다.

시공의 초월

1503년 프랑스 쉐리미드 프로방스의 유대인 가정에서 태어난 미셀 노

스트라다무스는 22세에 몽펠리에대학을 졸업하고 의학공부를 계속하여 4년 뒤에는 의사자격을 얻었다. 가난한 사람들에게 인자했던 그는 뛰어난 의술을 가진 의사로서 매우 높은 평을 받고 있었다. 20년간의 의사생활 끝에 1550년 첫번째의 역서(曆書)를 내놓기 시작했는데 모두 15권의 역서를 더 출간하여 저작가로서도 성공을 거두었다. 그러나 사람들의 머리 속에 가장 깊은 인상을 남긴 것은 1555년과 1558년 사이에 출판된 ‘상투리’라고 하는 일련의 예언시(詩)다. 모두 12권으로 된 그의 예언시는 한권에 백편의 4행시를 수록하고 있다.

이 예언시는 시공의 구애를 받지 않는다. 예컨대 노스트라다무스가 세계의 종말이라고 지정한 날짜는 출발점의 선택에 따라 계산하는 방법이 달라질 수 있어 ‘아마겟돈’ (최후의 괴멸적인 대결전)은 2000년에 올 수도 있고 3797년에 올 수도 있다. 실제로 ‘상투리’의 매혹적인 리듬과 풍부한 표현은 잉크블롯 테스트(잉크를 흘려서 번진 무늬를 피실험자에게 보여주고 설명하게 하는 각종 심리테스트)처럼 보는 사람마다 제 나름의 비전을 가지고 자유롭게 해석한다. 그런데 그의 예언시는 예언의 정체가 드러나는 순간까지 그 진정한 의미를 숨기게 구성되었기 때문에 마치 애너그램(어구의 철자의 위치를 바꿔서 새 어구를 만드는 일)처럼 다룰 수 있다.

그는 1537년 흑사병으로 처와 두 아이를 잃은 뒤 새 장가를 들어 3남 3녀를 두었는데 막내 아들 세자가 태어난 1556년에 ‘상투리’를 쓰기 시작했다. ‘상투리’ 첫권의 머리말

은 '나의 아들 세자 노스트라다무스의 행복을 위하여'로 시작된다.

아들이 어른이 되는 것을 보지 못하고 죽는다는 것을 예측한 그는 장차 아들이 맞을 세계는 어떤 세계일까 밝혀 주려고 하면서 '상투리'를 세자의 미래와 연결시켰다는 것이다. 아무튼 1566년 그가 죽은 뒤 그의 추종자들은 시대에 어울리게 그의 예언시에 그럴싸하게 새로운 해설을 붙여나갔다. 1594년 친구로 자처한 샤비니가 첫번째 해설을 붙인 뒤 1693년에는 귀양, 1940년에는 바레스트 그리고 1929년에는 피오르가 새로운 해설을 달았다. 노스트라다무스의 진정한 해설가로 자처하는 V. J. 휴위트는 노스트라다무스가 사담 후세인, 넬슨 만델라, 마가렛 대처, 보리스 옐친, 제인 폰다, 테드 터너를 포함한 20세기의 많은 인물들에 관해 사전에 예지(豫知)하고 있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과학기술시대에 사는 현대인들 가운데는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 식의 해석을 진정으로 믿는 사람은 많지 않은 것 같다.

방향을 '오늘의 운세'

21세기의 여명(黎明)을 앞두고 우리나라에서도 비과학적인 풍조가 머리를 들고 있다. 최근 경제가 어려워지면서 이런 경향은 더욱 심화되고 있다. 젊은이들이 모이는 신촌이대 앞을 비롯하여 성신여대 앞, 종로, 대학로에는 점집과 카페를 조합시킨 신종의 '사주카페'가 수십채씩 성업중이다. 집집마다 전담 도사가 상주하면서 취업문제로 고민하는 대학생들에게 직업운세를 봐주고 있는데 이들은 이런 카페에서 레스토랑

랑 그리고 커피숍까지 진출하고 있다. 학생들은 극심한 취업난에 답답한 마음을 풀길이 없어 '사주카페'를 찾는다고 하지만 결코 21세기를 맞는 젊은이들로서 바람직한 일은 못된다. 대학입시를 앞두고 어떤 과를 선택하면 합격할 수 있을까 묻는 학생에게 "당신은 서쪽에서 운세가 트이니 서양학 관련 학과를 선택하는 것이 좋겠다"고 권하는 점술사들도 있다는 것이다.

그런데 더욱 걱정스러운 것은 일부 대중매체까지 독자들의 궁금증에 영합하여 비과학적인 풍조를 부추기는데 한몫 거두고 있지 않는다는 것이다. 오늘날 권위를 내세우는 유력지들을 포함하여 우리나라에서 발행되는 일간지중에는 '오늘의 운세'를 게재하는 신문들이 많다. 그러나 같은 날의 운세가 신문마다 다르다는 사실을 발견할 때 독자들을 당황하게 만든다.

예컨대 어느날의 47년생의 '오늘의 운세'를 보면 A지에서는 "수입이 증대하고 생활이 향상된다"고 했으나 B지에서는 "작은 구설이 화근이 되어 큰 다툼이 예상된다"고 했고 C지에서는 "제자리로 돌아오라. 본분을 망각하고 있다"고 경고하고 있다. 다른 날의 56년생의 운세를 보면 A지에서는 "상인이나 여성은 소자본으로 목돈을 만들 수 있으니 증권에 투자할 때다"고 했으나 C지에서는 "안이하게 불 문제가 아니며 신중하게 처리하라"고 경고하고 있다.

각지마다 해설을 담당하는 운세가들이 다르기 때문에 그럴 수 밖에 없다고 해도 결국은 구독하는 신문에 따라 같은 사람의 운세가 달라

진다면 독자들을 위해서는 이런 난은 없는 것보다 나올 것이 없을 것 같다.

전파를 타는 '점'

오늘의 운세풀이는 사이버스페이스시대에 걸맞게 전파매체를 타고 마음대로 시공을 넘나든다. 전파를 통한 '운세 서비스업계'는 나날이 번창하여 사이버점집들은 늘어만 가고 있다. 이들 중에는 신문지상에 낸 광고에서 '어느 날 모방송국 프로에서 출연한 무속인 대표'라고 스스로 소개하면서 대중매체의 공신력을 교묘하게 자기선전에 이용하는 사람도 있다. 또 대통령선거철을 맞아 관상가들도 기지개를 펴기 시작한다.

한편 비과학적인 이야기가 거침없이 신문지상에서 활개를 치는 일도 있다. 예컨대 어떤 신문칼럼에서는 소녀와 동침하면서 소녀의 기(氣)를 섭취하여 장수한다는 이야기와 달에서 방사하는 기운(음기)은 여자가 아이를 낳게 하는 원동력이라고 소개하여 이런 일이 마치 과학적인 검증 거친 것같은 인상을 풍기기도 한다.

점쟁이, 신앙치료사, 신비주의자, 점성술사, 마술사, 협잡꾼, 손금쟁이, 골상가들이 활개를 치고 번창하는 사회에서는 '반(反)과학' 정서가 번져나가 국가 발전에 치명적인 저해요인을 제공할 수 있어 이런 사회나 국가는 결국 21세기의 낙오자가 될 수밖에 없다. 새로운 세기맞이를 위해 우리 사회에서 모든 미신적인 요소를 배제하고 참신하고 진취적인 분위기를 가꾸는데 대중매체의 선도적인 역할에 기대를 걸어본다. ㉞